간화 禪 세계를 비추다

❷고우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참선 수행의 목적

# 법은 중도연기 달리 표현할 뿐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로버트 버스웰)이 8월 12~13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금봉암)은 '참선 수행의 목적'을 주제로 회향법문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화두참선이란 생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세상 아니야
## 정견이 바로 서 대신심 · 대의심 · 대분심 일어나야 해

"부처님께서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태어나셨고 마야 부인 태속에 들기 전에 중생을 제도해 마쳤다."

젊은 시절 이 법문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고도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양의 세계' 즉 '말의 세계'에 너무나 익어진 삶을 살아 왔기 때문에 말 이전의 세계는 상상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법문이 간화선을 바로 알려준 법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한다는 조사스님의 낙처를 바로 보는 안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눈으로 보면 간화선은 이 모임이 시작되거나 시작되지 않거나 간에 이미 완벽하게 보여 지고 있다. 간화선에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많은 수의 대나무 그릇을 바다에 담갔을 때 그릇마다 바닷물이 가득 차 들어오지만 바닷물 자체는 온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는 이치와 같다. 다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 자기 그릇 속에 들어있는 물만 따로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고, 내 영혼 네 영혼이 따로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다.

제법무아(諸法無我)의 도리 즉 연기법을 모르고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독립된 실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생들의 생각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간화선의 특성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요 심행처멸(心行處滅)이다. 교외별전(敎外別傳)이요 불립문자(不立文字)이다. 내가 부처임을 바로 보는 세계이다.

기록의 역사가 아닌 존재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자 가섭 스님이 파안미소했다. 이것이 천지미분전(天地未分前) 소식이다. 바로 마음과 마음을 전한 소식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소식이다. 이러한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도리를 세 곳에서 보이셨다고 해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 한다. 고불미생전 면목(古佛未生前 面目)을 역력하게 보여준 소식이다. 이 삼처전심이 바로 간화선 역사의 시작이다.

혹자는 삼처전심의 기록이 있고 없고를 갖고 진위를 따지려고 한다. 이는 인간의 기록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생각이다. 기록할 줄 아는 주인공을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한다. 기록만 갖고 진리를 보려면 그런 생각은 실상을 부정하고 그림자를 쫓는 격이다. 기록이란 이미 상법(相法)일 수밖에 없다. 존재자체인 무성연기(無性緣起) 즉 실상의 세계는 기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가(禪家)에서는 인간의 기록을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을 깨달은 선지식들의 점검을 믿는다. 역대 33조사와 제대 선지식들이 한결 같이 삼처전심을 찬탄하고 거량해온 터에 그 보다 더한 참 기록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기에 동토 초조 달마 대사는 확연무성이라 하셨다. 확연해 말길이 끊어진 자리요, 마음길이 멸한 자리라는 것이다. 2조 혜가 스님을 거쳐 3조 승찬 스님은 <신심명>에서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는 것인데, 오직 고르고 분별함을 꺼린다. (고르고 분별하기 때문에 지극한 도에 이르지 못한다) 단지 미워하고 사랑함이 없다면, 텅 비어 명백하리라(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라고 말한 것이다. 양변을 여읜 중도를 깨달아야 이심전심이라는 가르침이다.

4조 도신 스님의 안심법문에 이어 5조 홍인 스님에 이르면 이심전심의 세계를 선문답 형식으로 쓰기 시작했다. 홍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한 채의 집이 있다. 그 속에 온갖 오물이 가득하다. 이 어떠한 물건인가?" 거듭 말씀하시기를, "모든 오물을 깨끗이 씻어내어 한 물건도 없을 때 이 무슨 물건인가?" 여기서 몰록 깨달으면 조사선(祖師禪)이요 깨닫지 못하고 참구해야 한다면 간화선(看話禪)이다. 이와 같이 조사선과 간화선은 이름만 다를 뿐이다. 선 그 자체에는 그 이름도 없다. 5조를 이은 6조 혜능 스님은 이러한 사상을 무념위종(無念爲宗)이요 무상위체(無相爲體)요 무주위본(無住爲本)이라는 사상으로 본래성불(本來成佛)의 도리를 깨달으라고 했다. 바로 돈오사상이다.

이렇게 생각 끊어진 자리인 참선법이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6조 문하에서 강호제현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강서의 마조 스님, 호남의 석두 스님으로 이어졌다. 그 가운데 마조 스님(709~788)의 중도(中道)와 평상심(平常心)을 살펴보자. 마조 스님은 중도를 자성청정(自性淸淨)이라고 가르쳤다. 그 중에서도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많이 강조하셨다.

"무엇이 평상심이냐? 조작이 없고 시비가 끊어졌으며 취하고 버림이 없으며 단상(斷常)이 없고 범성(凡聖)이 없는 것이다"라고 평상심을 정리해 스승인 6조의 무념위종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까닭에 간화선(看話禪)에서는 화두일념(話頭一念)이 되어 화두를 타파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평상심이요 중도라고 한다.

북종선 신수 대사 계열에서는 자성청정 가운데 청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닦는 법을 강조하여 점수돈오(漸修頓悟)라고 했고 남종선 6조 혜능 계열에서는 자성청정 가운데 청정을 본각(本覺)으로 보고 본각에 중점을 둔 까닭에 돈오돈수(頓悟頓修)라고 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법 그 자체에는 돈이니 점이니 본래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서 백장을 거쳐 황벽의 전심법요, 임제의 무위진인, 조주(778~897) 스님에 와서 무자(無字)화두,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뜰 앞에 잣나무), 판치생모(板齒生毛, 앞니에 털이남) 등 많은 화두가 제시됐다. 특히나 조주 스님은 3조 승찬 스님의 <신심명>에서 5칙이나 되는 공안을 들어 보였다. 이는 간화선이 이미 3조 때부터 이야기됐다는 말이다. 그러니 대혜 스님(1089~1163) 대에 와서 간화선이 새로 생긴 걸로 본다면 그것은 문자로 정형화된 간화선만 보는 것이 된다.

조주 스님을 거쳐 벽암록의 저자 원오극근 선사는 제자인 대혜에게 임제 정종기를 내렸다. 그 일부를 옮겨보면 "삼현(三玄) 삼요(三要)와 사료간(四料簡) 사빈주(四賓主)와 금강왕의 보검과 땅에 웅크린 사자(踞地獅子)와 한 할이 한 할의 작용을 하지 못함(一喝不作一喝用)과 고기 찾는 장대 그림자 풀(探竿影草; '고기 찾는 장대[探竿]'는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에는, 먼저 물의 깊고 얕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림자 풀[影草]'은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려 할 때에 먼저 불 켜진 방안에 주인이 잠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풀 묶음을 달빛에 흔들어서 그 창문에 비추어 보는 것)과 한 할에 손과 주인의 나뉨(一喝分賓主)과 비침과 작용이 동시에 행하여짐(照用一時行) 등의 허다하게 얽힌 실오라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알음알이를 따라 주해를 내리는데 나의 왕궁창고 속에는 이러한 칼이 없다함을 결코 몰랐다 하리라. 막상 염롱해 드러내 보이면 보는 자들은 그저 눈만 껌뻑 거릴 뿐이다. 모름지기 저 으뜸가는 근기라면 계합증득하고 시험 인정함에 있어서 정면으로 또는 측면으로 제접해 본분수단을 쓰거늘 어찌 방편과 지위점차를 빌리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철 스님은 <한국불교의 법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원오가 대혜에게 수시한 유명한 임제 정종기의 한구절로서 종문만세의 궤범이다. 삼

초기불교 VS 선불교



한국불교의 미래는 선불교인가 초기불교인가?
불교 전반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흥미진진하게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 같은 책. 현대 한국 불교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 전통적인 선불교와 새롭게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한판 대결! 한국사회에서 선불교는 한계에 봉착한 것인가? 남방불교의 득세는 일시적 유행인가, 아니면 한국불교의 미래인가? 보다 본질적으로, 한국 초기불교주의자들의 주장은 교리적으로 올바른가?
방경일 저 | 신국판변형 | 296쪽 | 값 13,000원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티벳 사자의 서』에 의한 중음에서의 해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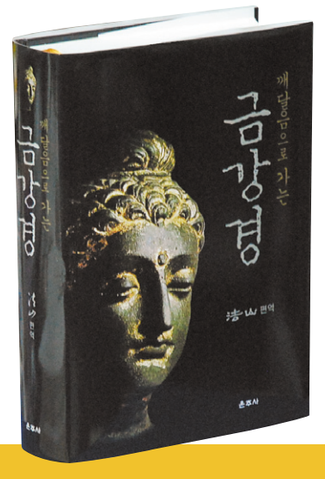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의 중음 기간 중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책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법성 편역 | 신국판변형 | 144쪽 | 값 8,000원

금강경 해설의 새로운 지평!!!
풍부한 일화와 사진,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넘나드는 깊고 폭넓은 해설!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초기불교를 자양분 삼아 더욱 풍부해진 금강경 해설!
이 책은 계율과 선정을 중시하는 초기불교와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승불교, 번뜩이는 지혜를 강조하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수행자의 안목에서 한 맛으로 회통하고 있다.

사진과 일화로 읽는 금강경!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듯한 생생한 해설과 다양한 사진자료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수까지도 오롯이 드러내 보인다.

한 편의 소설을 읽듯 흥미진진한 금강경!
마치 한 편의 상황극을 보는 듯 재미있고 친절한 풀이를 한 장 한 장 읽다보면, 지혜의 완성, 번뇌의 타파에 한 발 다가가 어느덧 참나를 찾는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법산 편역 | 신국판양장 | 올컬러 | 764쪽 | 값 38,000원



*저자 법산 스님은 국내 제방과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했으며, 현재 대구 대각사(053-6565-108)에서 불교명상대학 지도와 금강경 강좌를 통해 법연을 나누고 있다.

●붓다북 www.buddhabook.co.kr ●주문 (02) 3672-7181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